

농·임학, 약학, 전기·전자공학, 지리학, 화학공학 2년 연속 200위 내 기록…10개 분야 200위 진입

QS세계대학 학문분야 평가결과

황경선 기자 sunny96@knu.ac.kr

'2015 QS세계대학 학문분야 평가' 결과 우리학교는 36개 학문분야 중 10개가 상위 200위에 들었다. QS세계대학 학문분야 평가는 200위 밖의 순위는 공개하지 않는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순위 안에 든 분야는 경영학, 농·임학, 법학, 약학, 전기·전자공학, 정치학 및 국제학, 지리학, 철학, 현대언어, 화학공학 등이다.

특히 농·임학, 약학, 전기·전자공학, 지리학, 화학공학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전자정보대학 이수열 학장은 "교수님들 모두 열심히 연구해서 이룩한 성과"라며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외부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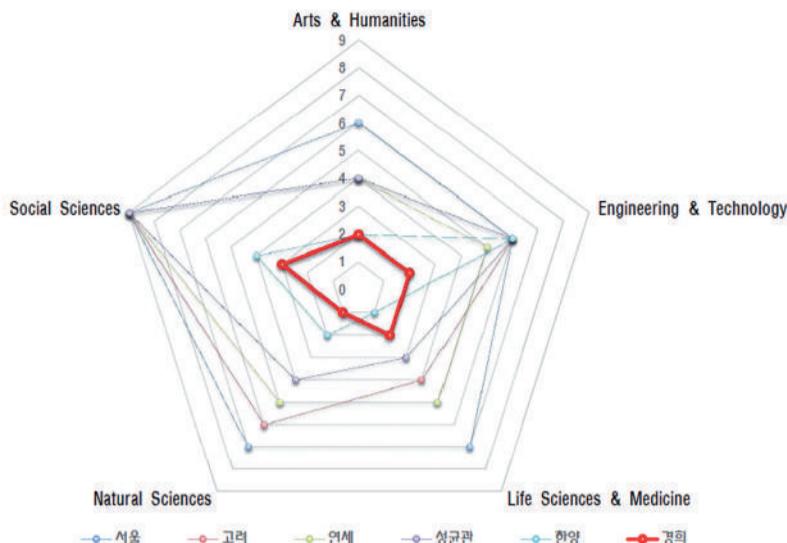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QS세계대학평가 학문평가는 전세계 3,500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학계평판도, 졸업생 평판도, 교수당 논문 피인용수, H인덱스(논문 발표수와 인용횟수를 이용해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측정하는 지표) 등의 지표를 이용해 순위를 매긴다.

QS세계대학평가 학문평가는 평판도와 논문 인용수 등으로 이뤄진다

이 때 학계평가와 졸업생 평판도, 즉 '평판도'가 평가의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인문·사회계열의 경우는 평판도가 거의 100%의 비중을 차지한다. 때문에 지난해에는 상위 200위권에 포함됐었지만 올해는 순위에서 이탈한 커뮤니케이션학, 토목공학, 재무회계학의 경우도 이 '평판도'에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미래정책원 학술진흥팀 김성환 계장은 "작년에 평판도 설문에 참여했던 교수들이 올해 설문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평가 순위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대학 중에서는 서울대가 35개 학문분야가 순위 안에 들었고, 뒤를 이어 고려대(29), 연세대(28), 성균관대(26), 한양대(15), KAIST(13) 그리고 우리학교 순이었다. 다른 대학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대학들이 전반적으로 강점을 보였던 공학과 자연과학에서 우리학교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속제로 남았다.

● 주요대학 영역별 Top 200 학문분야 비교



20명 이하 소형강좌 56개 축소

'대학알리미' 정보공시 분석

이진우 기자 urusa93@knu.ac.kr

대학알리미에는 학생들의 교육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2015학년도 '등록금 현황', '학생규모별 강좌수' 정보도 공시됐다.

2015학년도 평균등록금은 766만 4,300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등록금은 동결됐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예·체능과 공학계열은 전년도 등록금과 동일했고, 인문사회계열은 2만 7,900원 증가하고 자연과 학계열은 2만 9,600원 줄었다. 이는 입학정

원변경에 따른 차이로 해석된다.

다면 의학계열 등록금의 경우 각각 51만 4,200원이 증가했다. 의과대학 의예과로 전환하면서 등록금을 '신규' 책정했기 때문에 이런 증액은 등록금 평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학생규모별 강좌수 항목의 경우 2015학년도 1학기 총 강좌수가 지난해 1학기 대비 111개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100명이 넘는 '대형강의'도 44개나 줄었다. 하지만 20명 이하의 소형강좌는 56개 줄었고, 50명에서 100명이 수강하는 규모의 강좌는 76개 증가해 실질적인 강의환경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1면에서 이어짐

관련 논란으로 교육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들추지 않는 방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면서도 유팀장은 "국가기관의 재정지원 사업에서는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성적평가제도 관련 논의는 '성적제도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성적제도특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성적제도특위에서 지난달 30일까지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었지만, 대학본부와 총학생회(총학)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다음 4차

회의는 5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

국제캠퍼스 총학 이서영(식품생명공학 2012) 부회장은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양 캠퍼스 학생 의견을 고루 수렴할 수 있는 설문을 학사지원과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견 공유를 통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강필준(자율전공학 2012) 부회장은 "성적제도와 관련한 학생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 분석이 마무리됐다"며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빅이슈 사는 꼬깃꼬깃 쌈짓돈 학생들 보면 마음 징하죠"

빅이슈 판매원 '신' 씨 아저씨

최병현 기자 chbh1027@knu.ac.kr

"힘든 건 없죠. 오히려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께 감사해요."

신병현 '빅판(빅이슈 판매원)'은 지난 29일, 비가 내리는 낮은 날씨에도 서울캠퍼스 정문 앞에서 《빅이슈(Bigissue)》를 팔고 있었다. 날씨 탓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발길을 재촉하며 신 씨를 외면했지만,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날씨에 굴하지 않는 꾸준함"을 자신의 판매전략이라고 밝혔다. 《빅이슈》는 지난 2010년 창간한 잡지로, 잡지판매 활동을 통해 노숙인들에게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 씨는 이전 '빅판'의 자리를 이어받아 7개월째 정문 앞을 지키고 있다. 매주 수, 목, 금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판매 시간이다. 지난해 서울역 노숙인 쉼터에서 빅이슈를 알면서 바로 일을 시작했다.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저도 잘 기억을 못해요"라며 답을 피했다. "하루 평균 10권 안팎정도 판매하고, 많이 팔 때는 21권까지 팔아봤다"며 오늘을 자랑하는 그에게 어제의 일은 더묻지 않기로 했다.

빅판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없느냐는 물음에도 그는 "힘든 건 없죠. 오히려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고 답

했다. 오히려 신 씨는 "잡지를 구매해주시는 분들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해 많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후의 질문에도 그는 수고스러워보다는 감사함을 강조해 거듭 말했다.

특히 "꾸준히 찾아와 커피와 빵을 건네는 몇몇 학생들이 기억에 남는다"며 그는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전했다. "어떤 학생들의 지갑을 보면 꼬깃꼬깃하게 넣어져 있는 쌈짓돈이 보여요. 그런 돈으로 빅이슈를 구매하면 마음이 징하죠. 고마움을 많이 느껴요."

이어서 신 씨는 "방학에도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저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처럼, 다들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힘내서 열심히 살면 좋겠다고 항상 전해주고 싶었다"와 같은 응원의 말까지 전했다.

끝으로 신 씨는 빅이슈를 소개하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빅이슈 판매원 동료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며 "더 많이 관심 주신다면, 우리도 더 힘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빅이슈의 판매처와 판매시간은 빅이슈 코리아 홈페이지 (<http://www.bigissue.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빅판의 판매를 돋는 '빅돔(빅이슈 판매 도우미)' 봉사활동과 정기구독 신청 및 허리스 인식 개선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2015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 신입생 모집

1.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기간 : 2015. 4. 29(수) ~ 5. 8(금) 17:00

2. 원서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www.uway.com>)

3. 모집전공

구분	재교육과정	양성과정
서울캠퍼스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행정, 물리치료학, 미술관교育, 보건교育,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育	성당심리, 영양교육, 유아교육, 국어교육, 물리교육, 미술교육, 상업정보교育, 생물교육, 수학교육, 역사교육, 영어교육, 음악교육, 일반사회교육, 화학교육
국제캠퍼스	학교경영, 초등영어교育, 평생교육	수학교육, 영어교育, 일어교育, 중국어교育, 디자인·도예교育, 체육교育

4. 지원자격 : 4년제 대학졸업(예전자) 및 동등한 자격이 있는자

- 단, 양성과정의 경우 학부전공과 지원하는 본 대학원 전공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관련학과 34학점이상 이수자 및 기본이수과목 3과목(분야) 이상 이수자, 국어교육 2분야 이상)
- 그 외 전공별 세부 지원자격을 모집요강을 참고

5. 전형요소 : 서류, 필기, 면접 등

6. 특전

- 경희대학교 졸업생의 경우 동문장학금 지원
- 양성과정의 경우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7. 문의처

- 서울캠퍼스 : 02-961-0135~2
- 국제캠퍼스 : 031-201-2103~2
- 홈페이지 <http://edu.knu.ac.kr>

2015학년도 후기 법무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전공

구 분	학 과	전 공
석사과정	글로벌기업법학과	글로벌기업법전공, 미국법전공
	공공법학과	입법전공, 공법전공
	중국법학과	중국법전공
	지역자산법학과	지역자산법전공, 인터넷법전공
	조세법학과	조세법전공

● 장학제도

구 분	장학금	지급기준
경희동문장학	수업료 13%	본교 동문 및 호텔경영전공대학 동문
공무원장학	20%	공무원, 군인, 정부투자기관 재직자
외국인장학	30%	정원 외로 입학한 외국인
평생교육장학	20%	경희사이버대, 서울디지털대, 열린사이버대 졸업(예정)자
조교장학	50~100%	50~100% 학점조교 또는 연구조교에 지원하여 임용된 학생

* 국가고시장학, 성적장학, 모범장학, 총장장학 등 기타 장학제도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강의 - 주중(야간) 및 주말 개설

- 특별전형 일정
 - 원서접수 : 2015. 4. 27(월) ~ 5. 8(금)
 - 전형 일 : 5. 9(토) 10:30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E-mail접수(khsb2670@knu.ac.kr)

● 전형료 - 특별전형 지원자는 전형료 면제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대학교(학부)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문의처

- 전화 : 02 - 961 - 0905 ■ 홈페이지 : interlaw.knu.ac.kr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2015학년도 후기 언론정보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인원

구 분	학과	전공	모집인원
언론학석사 과정 (신입·편입)	저널리즘	신문·잡지 방송 광고 홍보	00명
	전자커뮤니케이션	스피치·토론 전자커뮤니케이션	
	문화콘텐츠	출판·저작권 대중예술 디지털영상	